

세계 농산물 교역 전망①*

최익창 · 이정민 · 김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품목별 교역전망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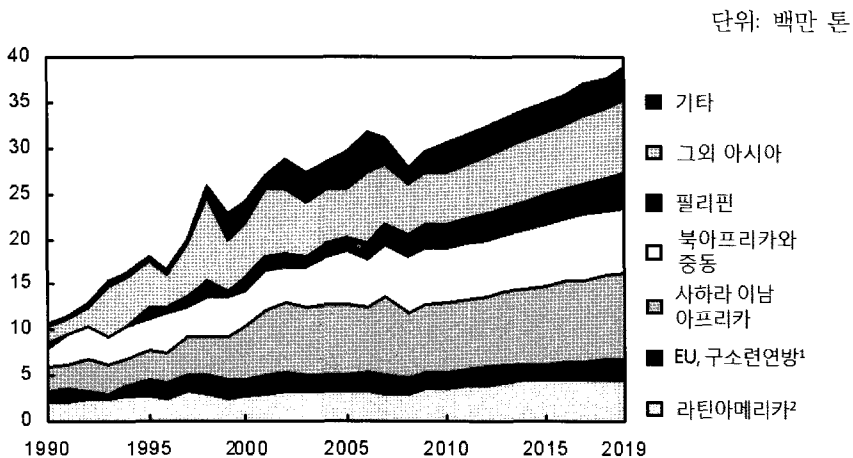
세계 쌀 교역량은 2019년까지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세계 쌀 교역량은 2006년보다 23% 증가한 3,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교역량은 2019년까지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세계 쌀 교역량은 2006년보다 23% 증가한 3,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 원인은 개발도상국가의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 상승 때문이다. 쌀의 소비량 대비 교역량 비율은 7%로써 이는 다른 곡물보다 현저히 낮은 값이다.

장립종은 세계 쌀시장 교역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단립종은 세계 교역량의 10~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동아시아가 최대 시장이다. 향미(바스마티 및 재스민 종)가 나머지 쌀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 이란, EU, 사우디 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이라크가 최대 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각국의 쌀 수입량은 130만 톤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들 국가가 쌀 생산량을 더 이상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세계 쌀 교역량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중 세계 농산물 교역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번역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익창, 이정민, 김대석 연구원이 작성하였다(cic@krei.re.kr, 02-3299-4354, fantom99@krei.re.kr, 02-3299-4198, sorihunt@krei.re.kr, 02-3299-4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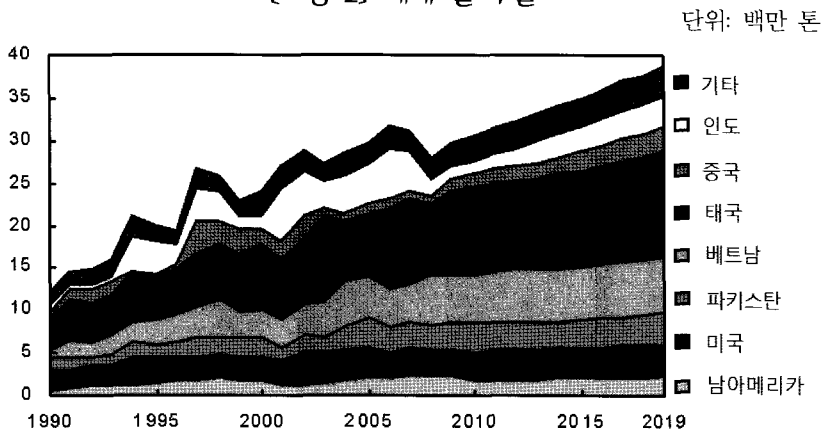
[그림 1] 세계 쌀 수입



주: 1) 유럽, 구소련 연합 및 기타 유럽 2) 멕시코 포함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중동은 인구증가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로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인프라 및 자원 부족으로 사하라 이남 지역의 쌀 생산량은 증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010 ~2019년 세계 쌀 교역량 증가분의 24%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세계 쌀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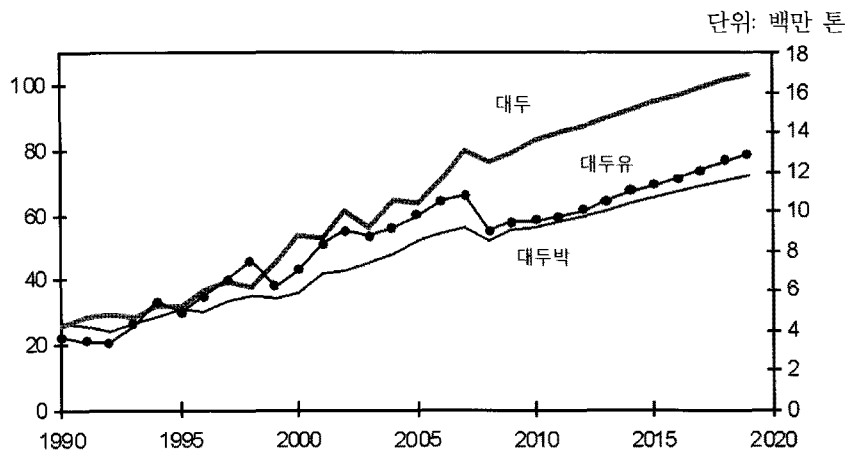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2019년까지 아시아지역은 최대 쌀 수출지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 및 베트남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으로서, 향후에도 세계 쌀 교역량의 50%와 쌀 수출 증가분의 40%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쌀 수출량은 260만 톤에서 2019년 1,200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태국의 쌀 재배지역 및 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수출은 550만 톤에서 680만 톤까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1990년대부터 세계 쌀 교역량의 3/4를 차지하는 수출국이었으나, 재고 변동과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2008년 비 바스마티¹⁾종 재배를 금지하면서 최근 쌀 수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쌀 수출금지 조치가 해제될 경우 2019년까지 인도의 쌀 수출량은 380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

대두, 대두박, 대두유

[그림 3] 세계 교역 전망: 대두, 대두박, 대두유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은 향후 대두 및 대두박 수출량의 89%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곡물 정책 혼란으로 농부들이 기타 작물보다는 콩 재배를 선호하고 있으며, 목초지역 일부분도 콩 재배로 돌

1) 바스마티(basmati): 낱알이 길고 향내가 나는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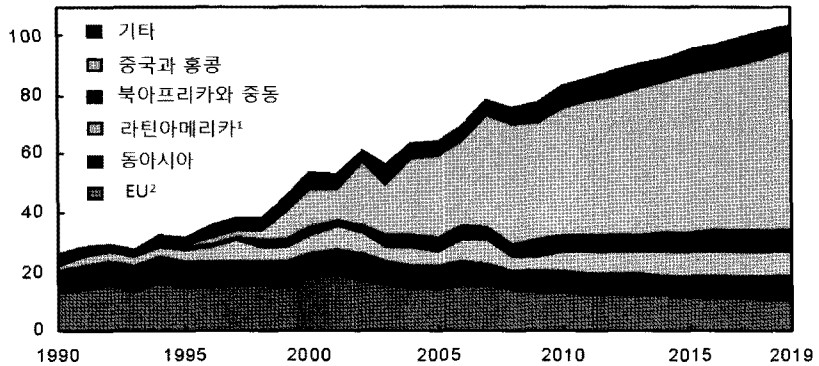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은 향후 대두 및 대두박 수출량의 89%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아선 결과 세계 대두 및 대두 수출량의 34%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콩 생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사료용 수요 증가로 콩 수출량은 30%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세계 대두 및 대두시장 점유율은 현재의 29%에서 2019년 26%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대두

[그림 4] 세계 대두 수입

단위: 백만 톤



주: 1) 멕시코 포함, 2) EU 내 교역 불포함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향후 세계 대두시장 교역량은 25% 증가한 2,100만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U는 2002년까지 주요 대두 수입국이었으나, 사료용 곡물박 및 평지박(rapeseed meal), 대두박 수입 증가로 대두 수입량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두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세계 교역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옥수수 및 대두의 생산 혹은 수입의 상충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은 옥수수는 국내 생산 하되, 대두는 수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전세계 교역량의 85%(2,08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국가(일본, 한국, 대만)의 대두 수입량은 육류 수입량과 생산량 사이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사료용 대두박 및 유지박의 수입은 육류 소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세계 대두시장 교역량은 25% 증가한 2,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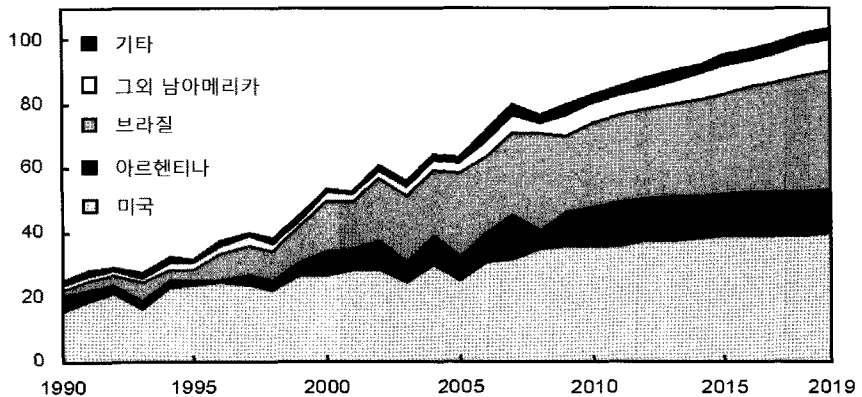
주요 대두 수출국가(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들이 세계 교역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수출국가(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의 등장으로 이들 국가의 점유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대두 및 대두 생산물의 주요 수출국이나, 대두 녹병이 만연하여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용 대두박과 식용 유지, 바이오디젤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두 생산의 이익 폭이 다른 작물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옥수수 재배지역으로 이용되던 브라질 남부지역이 대두 생산으로 바뀌고 있어 미국과의 옥수수 수출 경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라도스 지역 및 레갈 아마존 지역의 대두 생산량 증가로 브라질의 대두 생산 면적은 매년 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대두 수출량은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대두박 교역량은 2019년까지 28% 증가한 1,700만 톤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세계 대두 수출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관세율은 대두 가공품보다 높아 가공품 수출이 더 많다. 그러나 대두수요가 증가하여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량은 향후 1,200만 톤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같은 남미국가의 대두 수출량은 45% 증가한 1,000만 톤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세계 대두박 교역량은 2019년까지 28% 증가한 1,700만 톤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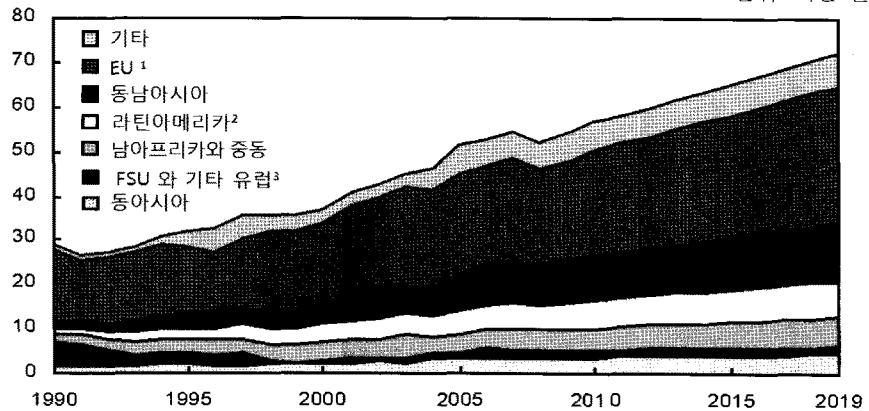
다. 가축 사료용 수요와 유지류 생산 정체,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가격 등으로 대두박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대두박 가격이 대두 및 곡물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축 사료용으로 대두박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EU는 국내 사료용 곡물 및 유지 작물 생산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 최대 대두박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바이오연료 산업 성장에 따라 유지박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으나, 사료에 이용되기에는 양이 충분하지 않다. 그 결과 EU의 대두박 수입은 세계 교역시장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유 및 유가공품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대두박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가축 사료용 대두박 수입이 증가하고, 구소련 연방국의 대두박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육류 생산량 증가로 인해 대두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세계 대두박 수입

단위: 백만 톤



주: 1) EU 내 교역 불포함, 2) 멕시코 포함, 3) 구소련과 그 외 유럽; 1999년 이전의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포함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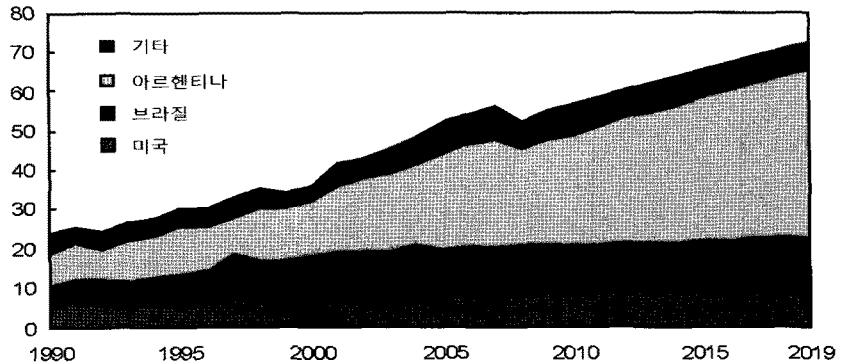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은 세계 대두박 시장에서의 주요한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세계 대두박 무역 중 90%의 비중을 차지한다. 아르헨티나는 주요 대두박 수출 국가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60%까지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대두가공품에 비해 대두에 높은 수출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유지작물의 가공 능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브라질 및 남아메리카 국가에서 대두를 수입하여 대두가공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그림 7] 세계 대두박 수출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브라질에서는 가금류와 육류 분야의 빠른 성장으로 자국내 사료 소비가 급성장하고 있어, 대두박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브라질의 대두박 가공 능력은 대두의 생산 증대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수출관세는 대두제품의 수출보다 대두의 수출에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이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5%에서 2019년에는 19%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두박 수출은 매우 천천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9백만 톤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 세계 대두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4%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1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대두박 수출은 2009년 3백7십만 톤에서 2019년에는 2백3십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국의 가금류, 달걀, 우유제품 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인도의 대두박 공급이 대부분 자국에서 소비되기 때문이다.

EU는 사료용 대두박의 비중이 비교적 작지만 꾸준히 러시아와 그 외 동유럽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